

1. 국악의 갈래

· 정악(正樂): 정악은 '바른음악'이라는 뜻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궁중에서 연주됐던 음악에서부터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겼다는 풍류음악 등이 정악에 속하며 '낙이불류(樂而不流) 애이불비(哀而不悲)'라 하여 즐겁되 넘치지 않고 슬프되 비통하지 않은 감정 절제가 정악의 특징으로 꼽힌다.

· 민속악(民俗樂): 궁중이나 양반계층이 아닌 평민들이 세속적으로 즐겼던 음악을 뜻하는데, 최대한 감정을 이입하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악기로 최대한 기량을 표현하는 독주음악 산조와 판소리가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장르이며, 무속음악과 토속민요도 민속음악에 포함된다.

2. 성악곡의 종류

전통음악 성악곡의 종류는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악은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가 있으며, 민속악은 판소리, 민요(民謠)로 구분된다.

1) 정악

· 가곡(歌曲): 가곡은 조선시대에 선비들의 풍류방에서 즐기던 전문 성악가의 노래이다. 시조를 기악반주에 맞춰 부르는 성악곡으로 5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성악곡에서 볼 수 없는 전주와 간주 성격의 대여음과 중여음이 있어 한 곡 안에서 기악 연주와 성악의 대비감을 느낄 수 있다. 가곡은 남창과 여창으로 구분되며, 남자가 부르는 곡과 여자가 부르는 곡이 별도로 지정 되어 있다. 남창가곡 26곡, 여창가곡 15곡이 전하며 남녀가 함께 부르는 태평가가 전한다.

· 가사(歌詞): 가사는 조선시대에 발달한 가사문학과 문인들이 즐겨 읽던 중국의 고전 명문장을 가곡과 시조와 비슷한 발성으로 노래하는 음악이다. 오늘날에는 12작품이 노래로 전하는데, 이것을 '12가사'라고 한다. 춘면곡·백구사·황계사·죽지사·양양가·어부사·길군악·상사별곡·권주가·수양산가·처사가·매화타령 등이다. 노랫말은 한문시형으로 된 것, 가사체 문장으로 된 것, 민요풍으로 된 것 등 다양하다. 반주음악은 장구와 대금, 피리 등으로, 노랫가락을 즉흥적으로 따라가는 '수성(隨聲)가락'이다.

· 시조(時調): 시조는 가곡의 창법과 분위기는 비슷하면서도 음악 형식과 선율을 단순하게 고정시킨 성악곡이다. 초장·중장·종장의 3장 형식이며, 글의 자수와 형식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장구만으로 반주하거나 대금과 함께 연주하며, 장단은 5박과 8박 장단이 번갈아 구성되어 있다. 시조는 지역에 따라 서울에서 부르는 경제, 충청도의 내포제, 경상도의 영제, 전라도의 완제 등이 있다. 또한 부르는 방법과 구성에 따라 평시조·사설시조·지름시조·중허리시조 등이 있다.

2) 민속악

· 판소리: 판소리는 소리꾼과 북 반주를 맡은 고수가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한국 삼대 성악곡 중 하나이다. 음악, 문학, 연극의 요소가 공존하여 높은 수준의 기량이 요구되는 전문 예술로 노래를 하는 창자가 일인다역을 연행한다. 판소리의 기원은 서사무가 기원설과 판에서 소리하는 전문집단으로부터 나왔다는 두 가지 학설이 대표적이다. 판소리에서 북 반주를 담당하는 고수는 창자의 소리를 돋보이게 하며 추임새로 분위기를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일고수(一鼓手) 이명창(二名唱)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고수는 판소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판소리는 가문, 지역, 사승관계에 따라 유파를 구분하는데 우조를 중심으로 하는 깨끗한 동편제, 계면조를 중심으로 하는 애환적인 서편제, 중고제로 나뉜다.

· 민요(民謠):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구전되어 온 생활 노래이다. 민요는 한 민족의 생활상과 정서를 가장 많이 간직한 무형의 유산으로 꼽힌다. 민요는 기능에 따라 노동요(勞動謠)·유희요(遊戱謠)·의식요(儀式謠)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의 따라 토속민요와 전문 소리꾼에 의해 전승되는 통속민요로 구분된다. 또한 지역의 음악적 특징에 따라 경기민요(경토리), 서도민요(수심가토리), 동부민요(메나리토리), 남도민요(육자배기토리), 제주민요로 나뉜다.

* 경기민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노래이다. 순차진행이 많아 부드럽고 가락이 서정적이며 경쾌한 편이다. 노랫가락, 청춘가, 아리랑, 긴아리랑, 이별가, 베를가 태평가, 경북궁타령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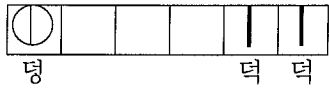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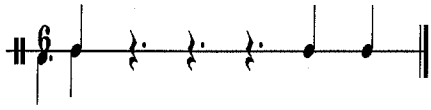
* 서도민요: 서도민요는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노래이다. 대표적 민요인 '수심가'의 이름을 차용하여 <수심가토리>라 일컫는다. 서도민요의 특징으로는 '라'음을 콧소리가 살짝 섞인 소리로 잘게 떨어준다. 이 특징은 서도민요를 구슬프게 들리는 역할을 한다. 수심가,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산염불, 자진산염불 등이 대표적이다.

* 남도민요: 남도민요는 전라남·북도에서 전승되어 온 민요이다. 다른 지역 민요에 비해 극적인 요소가 많다. 노래를 부를 때는 굵은 소리로 눌러내는 표현이 많으며, 이와 같은 음악의 구성을 <육자배기조>, <육자배기토리>라고도 한다.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민요는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흥타령, 농부가, 진도아리랑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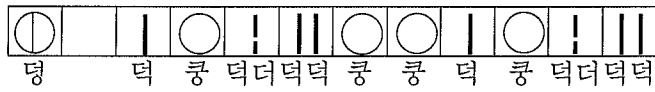
* 동부민요: 동부민요는 태백산맥 동쪽지역의 함경도와 강원도, 경상도를 포괄하는 민요로 이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통칭하여 <메나리조>, <메나리토리>라 한다.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는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등이 있다.

3. 한국의 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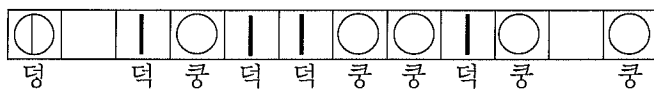
1) 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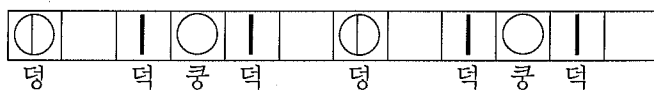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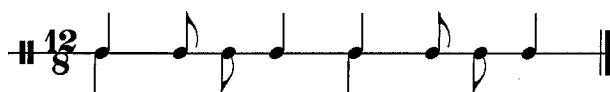
2) 중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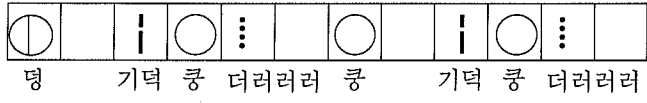
3) 중중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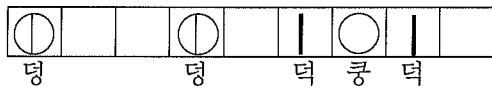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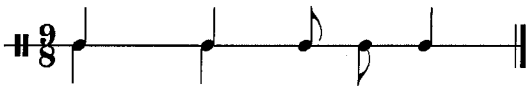
4) 자진모리



5) 곳거리



6) 세마치



상주모심기

1. 상주함창 공갈뭇에 연밥따는 저 큰애기
연밥 일랑 내 따줄게 우리 부모 섬겨다오
2. 이베미 저베미 다 심어놓고 / 또 한 베미가 남았구나
지가야 무슨 반달이나 / 초생달이 반달이지
3.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친구집으로 놀러가니
친구야 벗님은 간곳없고 공달패만 놓였구나
4. 싸립문 대청문 열어놓고 손님내는 어딜갔소
무삼일이 그리 많아 내 울줄을 몰랐던가
5. 못줄잡는 솜씨따라 금년농사 달렸다네
모심기는 농사치곤 칸좀맞춰 심어주소
6. 이고생 저고생 갖은 고생 모질게도 사는 목숨
한도 많은 이내팔자 어느때나 면해볼꼬
7. 능청능청 저 벼랑 끝에 시누 올케 마주앉아
나두야 죽어 후생 가면 낭군 먼저 섬길라네

상주모심기노래는 경상북도 상주지방에서 논 일을 할 때 부르던 토속민요로, 남도 명창들이 즐겨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형적인 동부민요조 가락이던 상주모심기 노래가 남도음악적인 요소를 띤 세련된 통속민요로 모습이 바뀌었고, 창작기악곡의 소재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사의 첫구절을 따서 '상주함창가'라고도 불린다.

강강술래

<중중모리>

강강술래 강강술래
전라도 우수영은 강강술래
우리장군 대첩지라 강강술래
장군의 높은 공은 강강술래
천추만대 빛날세라 강강술래

<자진모리>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읍신읍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높은마당이 얹어나지고 강강술래
얹은 마당이 깊어만지고 강강술래
읍신읍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나주영산 진 골목에 강강술래
은또가리 팔에 걸고 강강술래
지추 캐는 저 큰아가 강강술래
니야 집이 너 어디냐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주로 전남 도서·해안 지방에서 연희되는 부녀자들의 놀이이다. 특히 해남과 진도에서 성행하였다. 강강술래가 연희되는 시기는 8월 한가윗날 달 밝은 밤에 아름답게 차려입은 부녀자들이 넓은 공터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 노래와 춤으로 마음껏 뛰고 즐기는 것이다. 강강술래의 "강"은 주위·둘레의 뜻을 가진 호남 지방의 사투리이고 "술래"는 순라(巡邏)에서 온 밀로서 경계라는 뜻이니, 이것은 "주위를 경계하라"는 하나의 구호였다.

뱃노래

후렴) 어기야 디여차 어기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1. 부딪히는 파도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처량도 하구나
2. 창해 만리 먼 바다에 술렁술렁 노 저어라 달맞이 가잔다

자진뱃노래

후렴)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에헤- 에헤에헤 에헤에헤 에헤에헤 야- 에헤에헤 어허야 더허야
어야디야 (어야디야)

1. 달은 밝고 명랑한데 (어야디야) 고향생각 절로 난다
2. 순풍에다 돛을 달고 (어야디야) 원포귀범 떠들어 온다

경상도 지역에서 뱃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로 경기 명창들이 부르면서 널리알려진 통속민요이다. 굿거리장단의 뱃노래와 자진모리장단의 자진뱃노래가 어울어져 매우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메기고 받으며 주고 받는 '어기야디야'라는 후렴구는 노를 짓거나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다 함께 외치는 구령에서 전해진 것이다.